

2021 지구를 지키는 창작노트

‘우주 안의 다양한 감정 먼지들_감정의 갈등과 공감에 대해.’

<감정단어> : 세대별 인종별 각 언어로 말하지만, 감정은 공통적이다.
언어로 표현될 때 숨이 선이 면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 숨은 선을 통해 얼굴의 표정으로 연결된다.

<감정단어의 병렬적 구조 >

숨/정 : 생기와 감정

호/흡 : 날숨과 들숨

자/타 : 너와 나

고독/환희 :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불안/감격 : 흔들림과 오르내림

탄식/감탄 : 저마다의 감정 반응

나에게서 너에게로 들어가는 숨/흔 의 연결

숨(生氣)

가늘고 여린 숨이 들어가고 나온다.

호흡(呼吸)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은
맥박처럼 가볍게 요동한다.

정(情)

한 방향으로만 돌고 돌고
굵어진 숨은 심장처럼 들썩이다.
고독(孤獨)을 선명하게 그린다.

격(激)한 숨소리

상(想)한 숨소리

험(險)한 숨소리

환(歡)한 숨소리

희(喜)한 숨소리

모(慕)한 숨소리

표정(表情)

얼굴의 윤곽이 잡힌다.

가늘고 굵은 숨이 얼굴위로 부양한다.

자(自)에게서 타(他)에게로

흘러들어간다.







관련영상물 제작과정 별첨합니다.

2021. 지구를 지키는 창작노트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봤다.

다른 환경, 다른 조건속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도 감정은
평등하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떤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표출될 수 있
으며 또한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본적인 감각 생을 알
리는 '숨'에 대해 이미지를 그려 나갔다.

그리고 그 감정이 표현되는 도구로서 디지털화 된 명제 속
에서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
해 보았다.

지구를 지키는 창작노트를 통해 모든 생명의 감각은 평등
하며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려 하는 작업 노
트였다.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무지 기쁘게 생각한다.